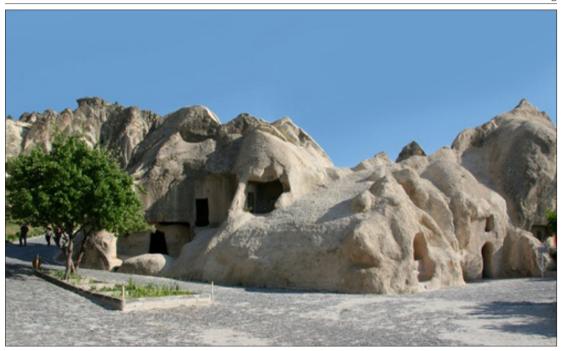


제2405호

2023.01.29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카파도키아 지역 케사리아의 괴레메에 있는 성 대 바실리오스 동굴 성당 모습이다. 11세기에 이곳 출신이며 대주교였던 성인 (330~379)을 기념하여 조성되었다. 이곳 괴레메 일대에는 박해를 피해 세워진 약 400여 동굴 성당이 있는데 현재는 그중에 30여 동굴 성당만이 개방되어 있다. 괴레메 수녀원을 세운 성녀 마크리나는 성인의 누님이다.



마태오 제17주일 성 이그나티오스 주교순교자 (제8조 • 조과 복음 11)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제8조 부활 찬양송 82
주교 찬양송 84
성당 찬양송
주님 입당 축일 시기송 164
사도경 : 고린토 후 6,16~7,1
봉독서 265
복음경 : 마태오 15,21~28 120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응답 받는 기도

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에 합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려면 먼저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 것은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에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 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를 찾아가 화해하고 나서 돌아와 예물을 드려라."(마태오 5,23~24)

합당하게 되려면, 먼저 당신의 형제와 화해하고, 용서를 청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기도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사람은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와 다툼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해결하고 마음을 정리한 후에 하느님께 봉헌하십시오.

'향기로운 삶과 말씀' 중에서 [정교회 출판사]

목적과 의미가 없는 삶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 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에 대해 생각 할 때 떠오르는 질문 한 가지는, "순교자 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던 이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가치도, 의미도, 내용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현대인의 삶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을까? 많은 도전과 갈등과 불확실 성과 위기와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의 삶에 말입니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삶의 목적과 의미'란 무엇일 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 또 하느님과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보통 이기심으로 인해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 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람'은, 대 바실리오스 성인 이 말씀하듯, "자기 자신을 살피고 성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약점이나 부족함을 분명히 바라보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투쟁합니다.

'하느님의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은 단순한 미덕이 아닙니다. 정신과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 거입니다. 오늘날 하느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 정신과 영혼의 건강이 온전치 못하며,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있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보통 오만함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해서, 사람 마음속에 혼란과 걱정과 불안이 지배하게 합니 다. 또한 심리적 질병도 극에 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마치 자신이 밟고 올라서야 하는 디딤돌이나 계단처럼 여깁니다. 예컨대 정치계를 봅시다. 어떤 정치가는 오직 권력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가를 집어 삼키려고 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거짓 약속을 일삼습니다.

불행하게도, 도처에 정당하고 공손한 경쟁이 아닌 불공정하고 비윤리적인 경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강요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과 상호 이해와 친교의 관계를 고취시키십니다. 즉, 진정성 있고 올바른 관계를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정한 가르침만이 현재 21세기 인간의 삶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자신이 다 른 사람들과, 그리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잘 깨닫고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 간은 어찌나 빨리 흐르는지요! 성탄절과 신현축일이 왔는가 했더니 어느 새 끝나버리고 마치 흐르는 물처럼 지난 몇 주가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날들을 멋지게, 여러분 영혼 안에 따스함과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이런 날에는 많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이때는 오히려 우리가 사랑, 친절, 자선 헌금, 작은 애정과 연민 등을 베푸는 날이랍니다.

이런 날에 당신이 친구 없이 우울하게 지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친구, 지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확인하세요. 만일 아무런 친구도 없다면, 그리스도를 당신의 친구로 삼으십시오.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까지 언제나 혼자이셨답니다.

불평하거나 투덜대거나 따지려 들거나 하지 말고, 아무도 섭섭하게 느끼도록 하지 말며, 제 발 누구하고도 싸우지 마세요. 싸움은 그리스도 의 사랑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사랑, 사랑, 사랑'만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누군 가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이 생각나거든 전화나 문자로 용서를 구하세요. 서로 오해했거나 대화 가 단절된 누군가에게는 이해와 사랑의 말을 건 네세요. 어쩌면 상대방은 자신이 더 강한 것처럼 보이려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당신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정 너 마리아와 많은 성인들께 기도를 드리세요. 그 러면 당신 또한 이런 축일기간 때 그분들과 함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예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잊지 마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성모님께도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모여, 우리를 위해 중보하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탄생으로 이 땅에 가져온 은총과 기쁨을 더 많이 느끼고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무명의 한 사제가 쓴 글에서]

주간 예배 안내

* 1월 30일(월)

성 대 바실리오스 대주교, 성 그레고리오스 신학자, !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총대주.

-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총대주교 3대 교부 축일
- * 2월 2일(목) 주 예수 그리스도 입당 축일 오전 9시: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Ⅲ 대교구 의회 개최 공고

1월 29일(오늘) 오후 3시부터 온라인으로 '제19회 대교구의회'를 개최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세례신자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안 결의와 발언권은 대교구 정관에의거하여 의회 의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일반 신자분들은의회를 참관하면서, 대교구 사업과 교회 발전 방향에 대해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줌 링크 주소는 각 성당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귀국

지난 1월 25일, 암브로시오스 대주교께서 그리스와 콘스 탄티노플의 일정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셨습니다.



살면서 겪는 시련이 결국엔 득(得)이 된다.

"불순물이 섞인 금을 센 불에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면 순금만이 남게 됩니다. 이처럼 불이 금을 정화하듯 슬픔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들을 아무런 불평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련이 결국에는 그들의 영적 성장을 촉진하는 자양 분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에 합당한 인내와 감사로서 받아들인다면 시련은 그리스도인을 완전에 이르게 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비록 그것이 우리의 약점과 아픈 곳을 건드리는 일이라 해도 우리는 절대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주시는지 그 정확한이유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우리를 위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견디면서 인내심이 생겨날 것이고, 이 인내로 인해 우리의 삶은 악의 길에서 벗어나 덕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성 대바실리오스의 가르침